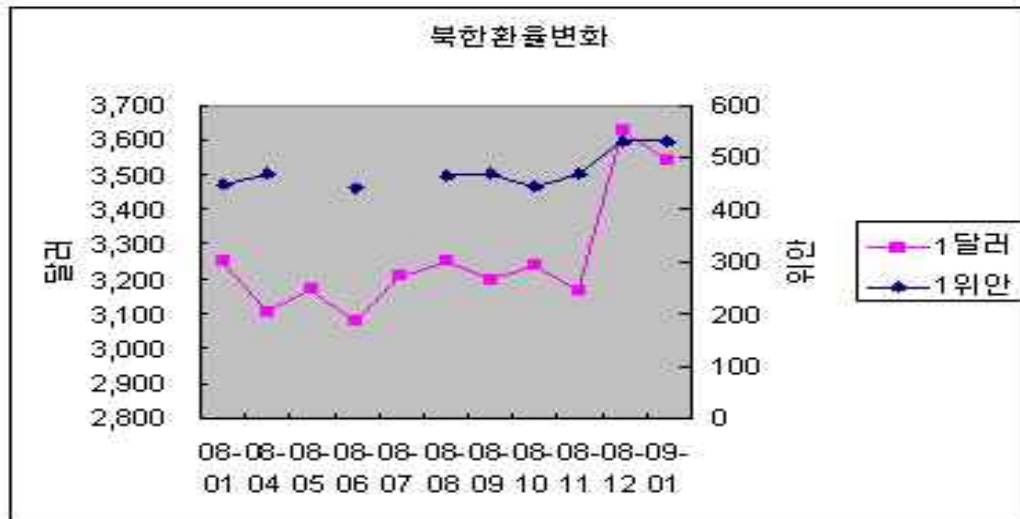


북한도 12월, 1월 환율 폭등



2008.01 ~ 2009.01 북한환율변동 ©열린북한통신

북한의 환율이 폭등했다. 2008년 한 해 북한의 환율은 3,200원(1\$기준), 중국 위안화는 460원(1元기준)대에서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기는 했지만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여 왔다.

그러다 12월 들어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12월 달러 환율은 3,630원(1\$기준), 중국 위안화는 530원(1元기준)으로 13~15% 가량 폭등했다. 1월 들어서는 3540원(1\$기준), 530원(1元기준)으로 약간 하락하긴 했으나 고회율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2월부터 환율이 폭등한 것은 중국의 대북 수입 규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의 무역업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번 중국의 일시적인 대북 수입 규제 조치는 중국산 불량식품(멜라민으로 추정)이 발단이었다고 한다. 중국산 불량식품에 의한 사고가 북한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중국산 물품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신이 생겼고, 이를 배경으로 북한정부가 중국 정부에 항의를 했다고 한다. 이에 중국은 오히려 대국주의가 발동하여 중국이 북한에게 본때를 보이려고 일방적으로 대북한 무역규제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북한의 총 무역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에 육박한다. 따라서 북-중 무역,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이 통제되면 북한 외환시장에는 반드시 큰 충격이 수반된다.

1월 들어 중국의 대북 수입 규제 조치는 완화되었다. 그러나 2009년 들어 북한 당국의 국내 시장 단속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하향 기조로 돌아설지는 단정하기 어렵다.